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미쓰이물산, 싱가포르 항만운영기업 Portek International 지분 13.93% 획득-----	2
□ 팡청항, 중국 서남부 최대 벌크허브 구축 추진-----	3
□ 중국 기업, 인도네시아 항만 개발에 관심 표명-----	4
□ 파나마, 라틴아메리카 물류중심지로 전환중-----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책임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미쓰이물산, 싱가포르 항만운영기업 Portek International 지분 13.93% 획득

- 일본의 미쓰이물산은 항만서비스 제공 및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Portek International사의 지분 13.93%를 필리핀의 ICSTI를 제치고 획득하였음
 - 일본의 미쓰이물산은 지난 7월 13일 총 21,256,000주를 주당 1.4 싱가포르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필리핀의 ICSTI가 제안한 주당 1.2싱가포르 달러보다 16.7% 높게 책정된 수준임
 - 한편 Portek사의 기존 주주 분포를 살펴보면, 현 CEO인 LAM CHOON SENG이 24.04%, 싱가포르 개발은행인 DBS NOMINEES PTE LTD가 19.4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주주들은 모두 4%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 Portek International사는 인도네시아, 몰타, 알제리, 가봉 등 4개국 5개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회계연도에 매출액 1억 2,600만 싱가포르 달러 (약 1,100억 원), 세전이익 2,3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억 원)를 기록하였음

<Portek International의 터미널 운영 상황>

국가	항만	터미널	선석길이	수심	처리능력(TEU)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옥 (Tanjung Priok)	TERMINAL 009	400m	8.5m	350,000
		TERMINAL 300	258m	12m	280,000
몰타	발레타(Valletta)	MAGAZINE WHARF	1,000m	12.5m	100,000
알제리	베자이아(Bejaia)	NOVEAU QUAI	500m	12m	200,000
가봉	Port d'Owendo		500m	10m	-
	Port Gentil		200m	12m	-

자료 : www.reuters.com, 2011.07.13. / www.portek.com, 보도자료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광청항, 중국 서남부 최대 벌크허브 구축 추진

- 광시성(广西省)에 위치한 광청항(防城港)은 중국 서남지역의 최대 벌크항만임
 - 광서북부만국제항무그룹은 친저우항(钦州港), 광청항(防城港), 베이하이항(北海港), 티에산항(铁山港)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광청항은 철광석, 금속, 석탄, 양곡 등을 처리하는 벌크 전문 항만임
 - 1960년대에 개장된 광청항은 말라카해협에 가장 근접해있는 중국 남부의 관문항으로 낮은 파도로 방파제가 필요 없으며 조수의 차로 인해 퇴적량이 적어 선석 및 항로 준설 비용이 낮음
- 광청항은 41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톤급 이상 선석은 26개임
 - 터미널 면적은 300만㎡이며, 창고 저장능력이 900만 톤으로 2010년 6,000만 톤을 처리하였음
 - 다른 벌크 터미널과 달리 광청항은 철광석, 석탄, 금속의 환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벌크화물에 대한 보세정책, 바람이 적은 위치적 특성으로 벌크화물 유실 최소화, 기업의 벌크화물 투자 등에 기인함
- 향후 광청항은 중국 서남부 최대 벌크허브 구축을 추진 중임
 - 광서북부만국제항무그룹은 광청항을 서남부 최대 벌크터미널로 구축하기 위해 20만 톤급 철광석 및 선화물 선석 2개, 15만 톤급 선석 9개를 건설할 예정임
 - 또한 벌크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터미널내 보세구역을 확장할 계획임
 - 이를 통해 “12.5” 계획기간동안 연간 1억 톤을 처리하여, 친저우, 베이하이항과 더불어 중국-아세안 국제허브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임



자료 : 방문조사 - 2011.07.06.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전문연구원(☎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기업, 인도네시아 항만 개발에 관심 표명

- 인도네시아 매체 Bisnis Indonesia에 따르면 3개 중국 업체가 3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바 섬(Java Island) 운송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짐
 - 이들 3개 중국 업체는 China Foundation for Desertification Control¹⁾, China Building Civil Constructions Co., Ltd.와 Changjiang Waterway Engineering Bureau²⁾임
- 동자바주(East Java Province) 투자조정위원회 Warno Harisasono 위원장에 의하면 동 사업은 2개 신항만 건설을 포함하여 기존 항만, 유료 도로 및 철도 선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임
 - Warno Harisasono 위원장은 마두라 섬(Madura Island) 1개 항만, 터반(Turban) 석유 및 가스 항만 건설 가능성에 대한 예비 논의가 있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의 최대 경제국이며, 석탄을 포함한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 많은 중국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한편, 올해 초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190억 달러 투자신용 제공을 약속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지도>



자료: www.porttechnology.org, 2011.07.14.

김홍매 책임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주관 기관은 중국국가임업국(中國國家林業國)으로 사막화 퇴치와 관련된 공익사업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빈곤지역의 친환경 산업개발(농업, 에너지, 축산 등)을 지원.
 2) 중국교통운수부 소속이며, 공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임. 주로 양쯔강 간선항로 계획, 건설, 관리, 유지보호 등 사업에 종사.

KMI 국제물류위클리

□ 파나마, 라틴아메리카 물류중심지로 전환중

- 파나마 언론사 La Prensa는 파나마가 2010년 파나마운하를 제외한 해운물류분야에서 3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지역 물류중심지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성장은 파나마 운하 양 해안간(Panama-Colon) 연결 철도 및 운하의 양쪽 끝에 세계적인 항만을 갖추었고, Colon Free Zone은 주요 대형도시와 연결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Tocumen국제공항은 인근의 다른 공항과 비교해 우수한 인프라 여건을 갖춘데 기인함
- 더욱이 컨설팅사인 Indesa사는 향후 10년간 파나마항은 매우 활발하게 발전할 것이며 연간 6-7% 성장하고 항만배후에 신규 물류시설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 한편 Colon 자유지역협회장은 파나마의 물류산업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파나마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파나마의 대형 항만중 하나인 Manzanillo 터미널은 2010년에 160만 TEU를 기록해 전년대비 23%가 증가했으며 운하의 확장으로 인해 4백만 TEU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파나마는 2010년 해운, 항만, 관련기관을 총괄하는 국가해운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Indesa사는 해운물류부문 매출액이 2020년에는 54억 달러, 2025년에는 8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파나마 Manzanillo, Colon Free Zone, Tocumen 위치>



자료 : www.prensa.com, 2011.07.17. / www.mundomaritimo.cl, 2011.07.18.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